

Press Release

대안공간 루프, <함양아\_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 2.0> 개최

**2019년 9월 27일(금)-10월 27일(일) AM10:00~PM7:00 / 휴관일 없음**

**작가와의 대화: 10월 2일(수) 오후 6시 / 대안공간 루프**

**함양아 \_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 2.0**



2019년 9월 27일 ~ 10월 27일  
대안공간 루프  
SEP 27TH ~ OCT 27TH, 2019  
ALTERNATIVE SPACE LOOP

협찬  
멀티텍 엄현수  
SUPPORTED BY  
MULTI TECH EUM HYUN SU



**YANG AH HAM \_ UNDEFINED PANORAMA 2.0**

대안공간 루프는 9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함양아\_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 2.0>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9년 만에 선보이는 국내 개인전이다. 전시를 기획한 양지윤 루프 디렉터는 “함양아의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는 후기 자본주의라는 사회 시스템의 무대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는 인류를 담은 현대 풍속화”라고 소개한다.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 2.0>의 주제는 금융의 역사를 통해 조망한 신자유주의 제도가 고착화되는 과정으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가져온 이러한 아이러니의 상황을 인간의 탐욕과 물신화의 현장으로 그려낸다. 동시에 함양아는 신자유주의 체계가 역사를 걸쳐 인간에게 늘 있었던 일반적인 상황인 양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지금을 비판한다.

함양아는 한국, 네덜란드, 터키 등 여러 지역에 거주한 경험을 토대로 사회시스템 안에서 존재하는 개인과 집단, 그리고 사회화된 자연에 대한 작업을 해 오고 있다. 주요 전시로는 <트랜스-저스티스, 타이베이 시립미술관, 2018>, <미디어시티서울 비엔날레, 서울시립미술관, 2016>, <불협화음의 하모니 전, 아트 선재 센터, 히로시마 시립미술관, 타이베이 관두미술관, 2015-2016>, <올해의 작가상 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3> 등이 있다. 2004년 다음작가상, 200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올해의 예술상을 수상했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암스테르담 라익스아카데미 레지던시에 참여했다. 전시는 서교동에 위치한 대안공간 루프에서 진행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이며, 입장료는 없다.

**주요 작품 이미지 및 작가노트**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 2.0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 연작은 불확실한 현재와 미래를 개인과 공동체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됐다. 지난 세기, 세계화와 과학기술의 영향으로 인류는 비약적 성장을 이뤘지만 그 혜택이 선택적 대상들의 몫으로 돌아가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은 단순히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는, 개인 간의 대립과 고립을 만들어내고 사회 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연작은 금융, 정치, 기술변화, 교육, 일 등의 분야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추상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서사구조를 구축하고 이 서사구조를 이야기와 이미지로 제작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분야에서 실제 있었던 개별적인 사례들이 사회구조 안에서 어떤 관계망을 그리며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여준다. 이 관계망은 복합적이며 상호적인 양상을 띠므로써 관객 각자가 작품을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 이야기에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 연작을 통해 작가는 현재 개인과 사회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생존과 관련된 심리 서사부터 사회를 지배하는 추상적인 가치 사고까지, 이미 알고 있는 서사구조를 다시 정교하게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가진 문제를 이해하고 질문하고 새로운 대안에 대한 잠재성을 가늠해 보자고 제안한다.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 2.0 Undefined Panorama 2.0, 7분, 2019

주림

긴 행렬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터널구조에 도달하게 된다. 터널의 입구는 비교적 천정이 높아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터널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점차 낮아지는 천정으로 인해 사람들은 등을 굽혀야만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었다. 일꾼들이 터널 내부로 연결된 굴뚝으로 끊임없이 화폐를 부어 넣었기 때문에 그 맛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신체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곧 적응하였고 마침내 그들이 터널 출구로 나올 때 즈음이면 등이 완전히 흰 채 굳어졌다. 이후로 그들은 언제 지나 등이 굽어진 채로 땅에서 음식물을 주워 생활하게 되었다.

<주림, Hunger> 은 음식이라는 단서를 가지고 현 세계의 형상을 그리고 있다. 개인은 일상적으로 익숙하게 음식을 소비하지만 식탁에 오르는 음식은 세계화의 흔적과 생존을 위한 식량 대 즐거움을 위한 식품이라는 계층 간의 격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첨예하게 동시대성을 드러낸다. 식품산업화와 세계화가 과거의 만성적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 여파로 인해 세계의 지역적 갈등과 식품의 배급, 소비에서의 불평등이 커져가고 있다. 현재와 미래에 개인과 사회, 자연이 음식의 연결고리 안에서 공존하기 위해 할 일은 무엇인가.



주림Hunger, 2019, 7분

Press Release



년센스 팩토리 - 쿠폰룸 Nonsense Factory - Coupon Room, 5분 11초, 2013/2017



년센스 팩토리 - 미래의 팩토리를 위한 도면을 그리는 방 Nonsense Factory - Blue Print Room for a Future Factory, 3분 30초, 2013-17

**함양아\_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 2.0**

양지윤, 대안공간 루프 디렉터

2014년 즈음 함양아는 아티스트로서 벽을 느끼기 시작했다. 20년 간의 예술 활동 후 비평이 체제에 흡수되어 운동성을 잃어버리는 것을 목도하는 절망감도 있었다. '어디부터 잘못되었던 걸까?' '무엇을 해야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질문은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에 닿았고, 함양아는 정치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 질문을 시작했다.

2018년 3월 그것을 스케치로 그려냈다. 스케치는 현재 정치 시스템이 갖는 2차원적 정부 조직도와 이를 위시하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바탕으로 했다. 조직도 안의 인물들과 조직도 밖의 인물들, 성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과 성 밖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연필 드로잉으로 그려갔다. 드로잉 속 인물들의 행위를 주변 친구들에게 하나씩 부탁하여 그린스크린에서 영상에 담았다. 개괄적으로 그렸던 연필 드로잉 위에 실재 인물들이 행위하는 영상물로 덮여갔다.

이를 하나의 화면에 담은 것이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 연작이다. 고정된 카메라 안에서 인물들이 순차적으로 화면 곳곳에서 행위한다. 행위의 순서들을 기반으로 관객은 각자의 관점을 갖는 내러티브를 만들어 본다. 이를 통해 현재 세계의 좌표 안에 관객 자신이 서있는 지점을 살펴보는 것이다. 함양아가 지금까지 실천해 온 사회비평적 방법으로서의 예술과 연장선에서, 개인과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본격화하는 시작점이 된다.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의 대형 프로젝트는 지금 현대 인류에 관한 풍속화로, 히로니무스 보스 Hieronymus Bosch의 <건초 마차>를 떠올리게 한다. 화폐 경제로 이행하는 13세기 이후 탐욕이 악의 근원으로 부상하는 세계를 그린, 세속의 재화인 건초를 차지하려는 탐욕이라는 죄를 다룬 중세적 종교화이다. 이 삼면화에서 보스는 타락 천사의 추방, 폭식하는 성직자, 폭행하거나 살인하는 사람, 사기 의술을 저지르는 돌팔이 의사 등의 모습을 통해 인류가 걸어온 죄악의 역사를 조망한다.

함양아의 작업은 현재 시스템이라는 무대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는 일종의 인형극을 보여준다.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 2.0>의 주제는 금융의 역사를 통해 조망한 신자유주의 제도가 고착화되는 과정이다. 한 인물이 걸어 들어와 정부조직도의 검은 풋말 하나를 건드리면, Treasury(재무부)라고 적힌 단어에 불이 들어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1970년대 말 대처리즘과 레이건 시대 이후 투자은행(실은 투기은행)이 본격 등장하고, 1986년 빅뱅이라 불리는 컴퓨터를 사용한 증권 거래가 시작되면서 신자유주의 경제라는 역사상 전례 없는 부의 집중이 발생한 기원을 다룬다. 니콜라스 네그로폰테가 설파한 '사용자 모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공동체'라는 기술유토피아적 찬양은 결국 슈퍼 리치와 테크노크라트의 등장을 가능케 했을 뿐이다.

마치 15세기 보스의 회화처럼 함양아는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가져온 이러한 아이러니의 상황을 인간의 탐욕과 물신화의 현장으로 그려낸다. 동시에 함양아는 신자유주의 체계가 역사를 걸쳐 인

## Press Release

간에게 늘 있었던 일반적인 상황인 양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지금을 비판한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시대를 해석해 보고자 하는 예술가의 욕구와 시스템을 통찰해 보고자 하는 지식인의 욕망마저 무력화시키며 체제 내로 끌어들이는다. 예술의 사회적 역할은 행동주의 운동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세계를 통찰하는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함양아는 많은 개별 리서치를 진행한다. 리서치 없이는, 관념화되고 공허한 이상주의적 구호 만을 외치게 될 뿐이기 때문이다.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는 정규 교과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된 사실들을 작가 자신의 주체적 리서치를 통해 발견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함양아는 공산주의 혁명과 국가 사회주의 개혁의 실패가 증명하듯, 제도에 의존하는 변화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오히려 개인의 혁명만이 현재 시스템을 극복할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제도적으로 삭제되었던 정보들, 사실들을 연구하고 재조립하는 교육과 이를 공유하는 실천이 동시에 필요하다.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는 향후 몇 년간 버전을 달리하며 진행될 계획이다.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관객과 나누고, 관객의 피드백에 대응하는 다음 버전이 만들어진다. 이런 민주적인 작업 제작 방법은 등장인물이 작가의 친구들, 친구들의 친구들이라는 사실과도 관계가 깊다. 이 사회 시스템이 갈수록 견고하게 소수만을 옹호한다면, 남은 방법은 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 간의 주체적인 연대와 지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함양아\_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 2.0**

전시기간: 2019년 9월 27일(금) – 10월 27일(일)

참여작가: 함양아

전시장소: 대안공간 루프

관람시간: 10:00AM - 7:00PM

주최/주관: 대안공간 루프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협찬: 멀티텍 엄현수

\*고용량 이미지는 Dropbox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링크)

<https://www.dropbox.com/sh/y2g4xzcv93d6vel/AAAGljVVGOUN7jFGZfkUv81ka?dl=0>

사진설명: <함양아\_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 2.0> 전시작품 이미지

이미지 제공: 대안공간 루프

Press Release

**관련링크**

대안공간 루프: [www.altspaceloop.com](http://www.altspaceloop.com)

**언론문의처**

대안공간 루프 전시팀

이선미 큐레이터 / 피지혜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02-3141-1377

[gallery.loop.seoul@gmail.com](mailto:gallery.loop.seoul@gmail.com)